

도서관에서 배우는 과학·경제·요리

광주 사직·산수·무등도서관 등 겨울방학 맞아 프로그램 풍성 모의 경영 '기업 만들기' 등 다채

광주시립도서관(사직·산수·무등)이 겨울방학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강좌를 준비했다. 초등학교(3-5학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강의는 요리, 경제, 예술 등을 배우는 '체험형 독서 프로그램'이다.

먼저 광주사직도서관은 겨울독서교실 '겨울, 과학과 예술이 온다'를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오전 9시-12시) 도서관 3층 다목적실에서 연다. 선착순 15명을 선발해 과학-예술 관련 도서를 읽고 독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1일 차에는 박수현의 책 '세상을 들썩인 거대한 쇠덩이, 에펠탑'을 함께 읽고 과학과 건축, 예술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학생들은 과학 원리를 접목한 '마시멜로 챌린지'에 참가하게 된다. 18분 동안 20개 스파게티 면과 테이프, 실, 마시멜로 한 개를 이용해 가장 높은 곳에 마시멜로를 위치시키면 우승하는 게임이다.

이외 상호 지지구조와 아치트러스 등 공학설계를 이용한 '다빈치 다리 만들기', '나만의 건축 설계도 만들기'가 이어진다.

2일 차(15일)에는 '세상이 반한 미소 모나리자'를 통해 모나리자에 투시된 과학 원리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다. 예술가이자 과학자였던 다빈치는 비례, 광학, 기하학 등을 이용해 그림의 정확도와 심미성을 높였다. 학생들은 짝을 지어 토론하는 '하브루타 토론'을 시작으로 '모나리자의 과학 원리 찾기', '아트 작품 만들기', '포토스탠딩 토론' 등을 체험한다.

진행을 맡은 구태희 강사는 "그림책과 과학탐구 실험을 통해 생활 속 과학의 개념과 원리를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참가자들은 '책'을 매개로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모색하고 관련 진로에 대한 호기심까지 갖게 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광주산수도서관이 준비한 '돈과 경제여행'도 이목을 끄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21-23일(오전 9시-12시) 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진행하며 선착순 20명 대상.



지난해 산수도서관에서 진행했던 '겨울 독서교실' 행사 장면.

<산수도서관 제공>

수업은 경제관련 도서를 읽으며 학생들의 경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다. 21일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해 유대인의 부자 되는 비법을 살펴보는 '부자의 탄생', 꼭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논의하는 '합리적 소비'로 이어진다.

22일에는 팀별로 기업을 만들고 모의 경영하는 '기업 만들기', 기부의 의미에 대해 탐구하는 '착한 소비', 돈의 힘과 양면성을 들여다보는 '더불어 사는 경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참가자들은 '가치 경제'를 통해 직접 경매를 경험해 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관'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마지막 날에는 '플리마켓', '용돈 기입장 만들기', '인생 그래프'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 3일 모두 참가 가능해야만 신청 가능하며 참고 도서로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금융', '살까? 말까?' 등을 미리 읽고 오면 좋다.

강미라 강사는 "특히 참가자들이 수업 전에 책 '초등 자본주의 학교(김상규, 사람인)'를 읽고 참여하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다양한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판단을 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두 강좌 모두 무료. 누리집 문화강좌란 신청.

한편 무등도서관은 '세계의 식탁' 문화로 맛보는 여행'을 오는 20일-22일(오전 9시-12시) 1층 소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직접 요리를 만든 뒤 독후활동을 진행하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요리란 ~이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된다. 이후 다른 나라나 지역, 요리 스타일을 결합해 만든 퓨전 요리를 알아보고 중국 스타일에서 즐겨 먹었던 두부를 활용한 '두부포 샌드위치'를 만든다.

이 외에도 멕시코 스타일의 '토르티야(남작병) 스낵랩', 우리나라의 대표 향신료인 '깻잎'을 활용한 '깻잎만두말이 김밥' 등을 직접 요리하게 된다. (강의에 감진)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겨울방학을 맞아 준비한 이번 행사가 문학과 예술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학생들에게는 독후활동의 즐거움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은 시민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했다.

자료비 1만4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세상 모든 꽃들에게 길을 묻다

이경은 시인 '꽃들에게...' 발간, 꽃에 대한 심상·에피소드 담아

시인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소재가 있다. '꽃'은 시인뿐 아니라 다른 장르 예술가들도 애호하는 모티프 중 하나다.

생명을 상징하는 꽃은 특유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발한다. 꽃이 떨어진 후 열매가 맺히는 섭리는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사유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꽃은 존재 의미, 관계의 방식 등을 드러내는 기제로 활용된다. 김춘수 시인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꽃'이라는 시는 존재와 관계의 의미를 탐색한 명작이다.

꽃, 일상을 모티브로 시집을 엮어낸 시인이 있어 화제다.

이경은 시인이 '꽃들에게 길을 묻다'(시와사랍)를 펴냈다. 시와사랍시학회 시목 부회장이자 국제PEN클럽 회원으로도 활동 중인 시인은 이번 작품집에서 꽃을 조망한다.

수록된 작품은 달맞이꽃, 들국화, 배롱나무꽃, 진달래, 튼신티, 민들레꽃, 패랭이꽃, 해당화, 벚꽃, 감자꽃 등 다채로운 꽃을 이미지화했다. 가만히 꽃들을 호명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진다.

시인은 "세상의 모든 꽃들이 나의 문학적, 학문적 은밀한 은유를 들어 주었다"며 "나의 시가 깊고 긴 호흡과 잘린 맛을 우려내는 근육으로 성장하길 지지해 주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꽃들에게 길을 물어 이정표를 찾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사회적 부조리에 저항



하는 힘이 되어주지 못해 부끄럽다"고 덧붙혔다. 작품은 꽃이라는 대상을 바라보는 서정적 심상과 서사적 에피소드가 결합돼 보는 맛, 읽는 맛을 준다.

"한 숨 먹고 피는 꽃/ 한 숨 토해 내는 꽃/ 열 달씩 감자를 키우고도 황토밭은/ 보릿고개로 출렁 거린다/ 유유히 피아뻬에 그늘려도 하연꽃/ 향기 내지 않는 꽃/ 배고픈 사람 내치지 않는/ 한해는 모아가 피우고/ 한해는 끝이 다가 키우는/ 감자꽃이 피어야/ 굴뚝에 연기가 피어 오르는 꽃"

위 시 '뒤돌아 보아야 피는-감자꽃'은 의미와 상징, 이야기와 이미지 등이 조화를 이룬 작품이다. 오뉴월 피어나는 감자꽃은 옛 사람들에게는 배고픔을 환기한다. '피아뻬에 그늘려도' 하얗고 향기도 내지 않는 꽃은 순정한 농부와 민초들을 닮았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근기와 고절의 향을 피워내는 '감자꽃 같은 이들'이 그리운 시대다.

강경호 시인은 해설에서 "꽃을 소재로 한 시편이 많은 이번 시집에서는 시인 특유의 상상력을 통해 시적 감각과 메시지를 드러낸다"고 평한다.

한편 이 시인은 시집 '등근 초록을 쓰다', '시 소리로 꽃피다'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연극배우' 꿈꾼다면 도전 하세요

극단 '드리머' 오늘까지 모집...3분 이내 자유연기 영상 제출



극단 드리머 작 'SAFE' 출연진들.

<드리머 제공>

2016년 지역에서 결성된 극단 드리머는 '배우를 꿈꾸는 누구나 연기할 수 있다'는 motto 아래 활동해 왔다. 이들은 충장로 Studio153(동구 중앙로 160번길 16-15 2층)에 자리를 틀고 연극·영화 제작/상연에 몰두해 왔다.

드리머가 새해부터 함께 활동할 배우를 모집한다. 7일까지 연기에 열정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지는 3분 이내 자유연기 영상을 준비하면 되며 필터 없는 기본 카메라 촬영해야 한다.

드리머는 연극·영화제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극단으로 초기에는 '은 필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했다. 그동안 '딱지왕', 'SAFE', '실종자들'을 비롯해 단편영화 '더 유니티', 연극 '아트', '택시' 등을 선보여 왔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4년 정도 휴지기를 보냈으나 최근 스튜디오 153(대표 정민정) 지원을 받아 재발족한 것.

드리머 이승준 대표는 "배우가 되고 싶고 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도전해볼 곳이 부족한 요즘이다"며 "도전의식과 열정만 있다면 나이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니 배우의 꿈을 품고 계셨던 'Dreamer'라면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유선 신청. /최류빈 기자 rubi@

광주 65세 이상 근로자 절반이 여성

광주여성가족재단 성별인구고용동향...'돌봄 정책 확대 필요'

광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근로자 중 과반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용직 종사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노인 인구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재단)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실태조사'를 인용·분석해 '광주광역시 65세 이상 고령자 성별인구고용동향'을 최근 발표했다.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 65세 이상 인구는 외국

인을 포함해 올해 24만5000여명에서 2030년 31만7000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고령자 비율은 2010년 58.9%에서 2020년 57.2%로 감소해 도시 고령화를 전망했다.

그 중 일하는 노인은 38.2%(9만2000여명)에 달했으며 부산(31.7%), 대구(31.4%), 서울(27.7%)보다 높았다. 근로자 노인 중 여성이 51.1%를 차지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광주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3.9%

(2019), 38.6%(2022), 38.2%(2023)로 나타났다. 성별 고용률 격차 또한 2019년 12.2%p에서 지난해 10.0%p로 떨어졌다.

광주 거주 노인들이 겪는 '확대됐으면 하는 노인정책'은 1순위가 치매서비스를 포괄하는 '돌봄'이었다. 이어 '소득지원', '의료'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따랐다.

재단 정책개발실 오현경 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광주지역 65세 이상 인구집단은 연령별, 출생시기, 성별로 복합적이며 다양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65세 취업자 중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보다 많지만, 동일 연령대 남성에 비해 임시·일용직 종사가 두드러지는 측면이 있어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